

동영상은 짧게... 해시태그로 챌린지... “MZ세대 모셔라”

동영상 플랫폼, MZ공략 다변화
유튜브 쇼츠 도입 큰 인기
 세그먼트카메라 등 제작기능 강화
틱톡 10대 위한 안전정책 시행
 기본계정 ‘비공개’, DM 사용안돼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이 MZ 이용자를 사로잡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최근 MZ 세대에 인기 있는 동영상 숏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쇼츠’를 도입하며 영상의 길이를 점점 줄이고 있다. 숏츠 동영상 플랫폼의 원조 격인 틱톡도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 예능을 이용한 해시태그 챌린지를 통해 MZ 이용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유튜브, 다양한 기능으로 MZ 맞춤형 콘텐츠 제공

유튜브가 신규 플랫폼 쇼츠를 도입하고 난 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인기를 얻을 때 TV에 비해 짧은 동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유튜브지만 보다 짧은

동영상을 요구하는 MZ 세대의 니즈에 맞춰서 동영상 길이를 점점 더 줄이는 모습이다.

쇼츠의 제작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쇼츠에 여러 비디오 클립을 연결할 수 있는 멀티 세그먼트 카메라, 음악 녹음 기능, 속도 설정 제어 등 기본적인 제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 유튜브 영상의 오디오를 샘플링할 수 있는 기능도 쇼츠만의 장점이다.

유튜브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알파벳의 손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쇼츠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65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체화면 영상과 댓글이 동시 적용된 메트로신문 유튜브. /강준혁기자

최근에는 전체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감상하기 쉽도록 하는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9월 유튜브 최신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전체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할 시 오른쪽 화면에 댓글 창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댓글을 삽입한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로 상대방과의 의견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 세대들의 문화에 맞는 업데이트다.

탐색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분야의 콘텐츠만을 감상할 수도 있다. 게임 방송을 즐겨보는 이용자의 경우 게임 동

영상만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콘텐츠를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틱톡, 해시태그 챌린지로 MZ 공략

틱톡은 MZ 세대를 위한 다양한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이용자 모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속 장면을 따라하는 #달고나게임,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속 춤을 따라 추는 #heymama가 대표적이다.

또,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유튜브보

다 더 어린 틱톡은 10대 MZ 세대들을 위한 안전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우선만 16세 미만의 틱톡 기본 계정 설정은 ‘비공개’로 돼 있다. 이들 계정의 영상은 소유자가 팔로우를 승인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 ‘내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기능도 만 16세 미만에게는 비활성화로 기본 설정된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원할 시 해제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다이렉트 메시지(DM)의 경우 만 16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만 16~17세의 경우 ‘아무도 없음’으로 기본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라이브 기능도 만 16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선물 주고받기 기능은 만 18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틱톡 관계자는 “틱톡은 만 14~18세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앱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과 정책을 개발 중”이라며, “틱톡은 세이프티 페어링 및 새로운 보호자 가이드 등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한전, ESG확산 ‘자상한기업’으로 상생

역량·노하우 등 소상공인에 공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업을 육성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자상한기업’으로 나선다.

자상한기업이란 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서초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및 ESG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 분야의 기업을 사전 선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입체적 연결로 새롭게 추진하는 ‘자상한기업 2.0’의 일곱

번째 협약이다.

한국전력은 국내 전력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에너지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자상한기업 2.0’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력은 자상한기업 협약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업을 500개 발굴해 창업 초기 비용, 컨설팅 등을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동반 진출 시범사업, 수출전시회 개최, 한국전력 수출 촉진 브랜드 사용권 확대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에너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오후 6시 이후에도 택배문의 접수하세요”

롯데글로벌로지스, VMS시스템 도입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고객센터 업무가 끝난 후에도 문의의 접수가 가능한 고객센터 음성 메시지(VMS) 상담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택배업계 최초의 시도다. 30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VMS 시스템에는 고객의 음성문의를 인식해 텍스트로 자동 변환(STT·Speech To Text)하는 첨단 IT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롯데택배 고객은 오후 6시 고객센터 업무 종료 이후에도 간편하게 음성으로 문의를 접수할 수 있다. 음성 문의는 STT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돼

전담 상담사에게 전달된다. 상담사는 확인 후 고객에게 카카오톡, SMS 또는 전화로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향후 고객센터 업무시간을 포함해 24시간 VMS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언제나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택배 고객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간단한 고객 상담 내용을 자동 응답해주는 ‘AI 챗봇’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상담 메뉴를 터치해 문의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사업 본격화

전남 울촌산업단지내 공장 착공 “폐 전지서 니켈·리튬 추출 판매”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했다. 폐전지에서 이차전지 소재의 필수 원료인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해 판매하는 친환경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포스코그룹은 30일 전남 울촌산업단지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창화 포스코 신성장부부장, 송상락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근섭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박현식 여수부시장, 김경호 광양부시장, 전창근 여수시 의회의장, 진수화 광양시의회의장,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LG에너지솔루션 장승세 전무,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 포스코HY클린메탈 지우황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창화 포스코 신성장부부장은 기념사에서 “포스코가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설립한 포스코HY클린메탈은 폐전지에서 이차전지 소재의 필수 원료인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해 판매하는 친환경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그



지우황 포스코 HY클린메탈 대표이사, 정창화 포스코 신성장부부장, 허용수GS에너지 사장 등 관계자들이 포스코HY클린메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있다.

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공급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이 착공한 공장은 전남 울촌산업단지내 6만㎡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건립된다. 2022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Black Powder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한다.

포스코는 올해 3월 유럽 이차전지 공장의 폐전지 스크랩을 Black Powder로 가공하는 PLSC 법인을 폴란드에 설립했다. 지난 5월에는 광물 정련·정제

에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중국 화유코발트사와 65:35 비율로 합작해 Black Powder에서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했다.

한편 이차전지소재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흑연 공급부터 양·음극재 생산까지 이차전지소재 밸류체인 경쟁력을 보유한 포스코그룹은 2030년까지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을 자체 공급해,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차전지소재 부문에서 매출액 연 23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시멘트업계, 지역사회 기금 250억 조성

KPC와 사회공헌 기금출연 협약

시멘트업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3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대표해 이날 오전 한국생산성본부(KPC)와 ‘시멘트업계·KPC 사회공헌 기금출연 협약’을 맺었다.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충북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멘트업계 간 체결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KPC는 시멘트업계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객관적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기금 운영의 조기 안착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